

第二分野(教育)

陶山에서의 退溪先生の 人格的 教育實動

發表者 渡部 學 (東京 武藏大學 教授)

<概 要>

朝鮮朝後期에 있어서 教育의 推移에는 書院의 祀院化와 鄉村書堂의 普及·發展이라는 두가지의 特徵的 現象이 보인다. 이것의 解明만이 朝鮮朝後期教育의 實態解明의 열쇠인 것이다. 退溪先生은 朝鮮朝前期에 있어서 書院의 成立에 깊게 關聯된 뛰어난 思想家였다. 따라서 淵源의 書院의 性格解明에는 退溪思想의 研究를 절대로 뱉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教育思想의 研究는 教育實動과의 關係를 無視할 수가 없다. 따라서 退溪先生의 教育思想을 陶山書院의 成立에 이르기까지의 先生의 教育實動과의 相關相下에서 考察해 본것이 本論文인 것이다.

先生이 師道를 스스로 實踐하러 한것은 明宗 4年(1549), 先生 49歲의 12月, 當時 慶尚道監司인 沈通源에게 白雲洞書院의 賜額에 對한 建議書 即「上沈方伯」을 낸후 歸鄉한 때부터였다. 그 後, 先生은 50歲 2月에 寒栖庵을 세우고, 거기서 先生自身이 매일 徹底한 人格的 實動을 시작하였다. 寒栖庵의 延長인 陶山書堂은 典型的인 藏書養拙書堂이고, 이것이 陶山書院의 核心的 契機를 이루하는 것이다. 이 陶山書院이야 말로 朝鮮朝書院의 典型的 淵源形態라고 보아진다.

退溪先生이 寒栖庵에서 「更謀遷而得地於山之南」 한것이 明宗 12年(1557) 先生 57歲때였다. 이후 明宗 12年(1567)에 召命入都할 때까지의 10年間은 退溪思想의 體系的 完熟期에 해당함과 아울러 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이 가장 현저히 發顯한 時期이기도 하다. 先生은 이때에 배운대로 가르치고 가르친대로 배우는 眞簡師道를 스스로 體現

한 것이다.

筆者가 注目하는 바는 退溪先生이 記를 撰하며 院規를 定해서 津伊山書院이다. 이 「故郡守琴候椅所創」인 養正堂을 其側에 移構해서 (이것을 收斂한 것과 마찬가지로) 後日에 形態는 變하였으나 鄭科營築, 鄭士誠이 就學한 「童蒙齋」와 같은 것이 陶山書院에 收斂된 것이다. 다시말해서 實로 學德兼備의 「藏書養拙之所」에는 자연히 많은 從遊之學徒가 몰려와서 高度의 教育機能을 發揮할 뿐 아니라 初學入門의 施設 또한 거기에 收斂 되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教育法則性이 보이는 것이다.

退溪先生의 陶山書院에 있어서의 人格的 教育實動은 實로 朝鮮朝의 人 特殊한 具體的 形態에 있어서 한 教育의 普遍的 法則性을 顯現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I.

朝鮮朝後期에 있어서 教育의 推移에는 두가지의 特徵의 現象이 보인다. 書院의 祀院化와 鄉村書堂의 普及·發展이라는 두가지가 그것이다.¹⁾ 이런 두가지 現象은 朝鮮朝後期 教育의 本質을 顯型的(phenotypical)으로 나타내는 徵候(symptom)인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現象 그 자체의 詳細한 解明, 말하자면 現象的 解明과 아울러 이들 두개의 現象間에 어떠한 機能的(functional)인 相關關係가 있는지 어떤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가 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것의 解明만이 朝鮮朝後期 教育의 實態解明의 열쇠인 것이다. 그런데 그의 解明은 韓國近代教育의 實態解明에 資하는 重要한 作業의 하나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日本統治下에 있어서는 祀院化한 書院이 先賢·先烈的 齋場으로 化해서 그의 直接的인 教育機能은 稀薄化한데 對해서 書堂이 1917년에는 總督府 統計에 의하면 全國一洞里 當 0.9堂이라고하는 높은 普及率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들 書堂은 教育內容의 으로 보아서 封建教育의 外皮를 장식하면서도 傳統的 原理에 서서 韓國民衆에 對한 國史와 國語의 教育을 發展的으로 維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

그런데 위의 「書院의 祀院化」라고 하는 現象은 어디까지나 「書院」의 祀院化인 이상, 淵源形態로서의 「書院」의 本質解明이 行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의 「書院」이 一定한 契機와 함께 「祀院化」해간 樣相을 찾아 書堂의 發達과의 사이에 서로의 機能的 關係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어떠한 條件下에서 그랬던가를 追求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日本の 寺子屋(書堂; 譯者)에 對해서 戰前 日本에서는 그것이 中國으로부터 移入된 것인지 어떤지, 移入된 것이라고 하면 韓國을 經由했는지 어떤지, 經由했다고 하면 어떻게 經由했는지가 學界에서 論擧의 卍앗으로 된 일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寺子屋는 日本 庶民社會의 成立·發展 가운데서 그의 條件에 卽應해서 自主的 自足

1) 講談社, 世界教育史大系, 第五卷, 『朝鮮教育史』, 渡部執筆通史, 第五章 參照.

2) 拙著『近世朝鮮教育史研究』(雄山閣, 1969, 東京)

的으로 成立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³⁾ 韓國의 書堂에 關해서도 韓國의 教育文化 그 자체의 即自的 條件가운데서 그의 本質을 認知하려고 努力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朝鮮朝後期の 두가지 特徵的인 教育現象은 이것을 서로 乖離(isolate)시켜서 追求함이 없이 朝鮮朝後期에 있어서의 教育文化의 全狀況(totality of situation) 下에서 解明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個個 現象에 관한 知識의 百科全書的 收集(agggregation)은 可能할지라도 朝鮮朝後期 教育——그것은 韓國의 近代教育, 더욱이는 現代教育和 歷史的으로 이어지는 것이나——의 本質的 實態를 認識할 수는 없을 것이다.

退溪先生은 朝鮮朝前期에 있어서 書院의 成立에 더욱 깊게 관련된 뛰어난 思想家였다.⁴⁾ 따라서 淵源의 「書院」의 性格解明에는 退溪思想의 研究를 절대로 撇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教育思想의 研究는 實體論 등의 形而上學的 思想과는 달리 教育實動과의 關係를 無視할 수가 없다. 近代教育思想의 源泉이라고 말해지는 韋士의 思想일지라도 그 個人으로서의 教育實動은 거의 이것을 缺해 있다고 보여지나 그의 思想은 當時 프랑스社會의 教育實動과는 緊密한 對應關係에서 있었던 것이다. 逆으로 페스타룻치의 思想은 思想的으로는 오히려 많은 矛盾을 內藏해 있었으나 그의 個人으로서의 教育實踐 即 人格의 教育實動에 의해서 그 思想全體가 近代教育의 金子塔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退溪先生의 教育思想도 陶山書院의 成立에 이르기까지의 先生의 教育實動과의 相關相 下에서 이것을 考察해야 할 것이다.

以下 이러한 觀點에서 筆者의 빈약한 아프리카치의 一端을 論述해 보고자 한다.

II.

朝鮮朝에 있어서 書院의 公的認定の 發端으로 된 것은 다 아는 바와

3) 石川謙 著, 『概觀日本教育史』(東洋圖書, 1940, 東京)

4) 拙著, 前掲書, 第四章「書院의 勃興과 書堂의 變轉」.

陶山에서의 退溪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

같이 順興 紹修書院의 賜額이다. 그래서 또 다 아는 바와같이 이 賜額의 發端이 된것은 白雲洞書院에 對한 賜額을 請한 退溪先生의 監司 沈通源에로의 建議書「上沈方伯」書였다. 이 建議書를 研究한 宋燮毓 教授의 論文⁵⁾에 의하면 그의 所述 內容은 다음과 같은 10個項으로 大別된다고 한다.

即

1. 白雲洞書院의 創健과 그의 管理運營의 經緯
2. 書院의 發源에 關한 說明
3. 書院 崇尚의 理由 및 各地 書院建立이 지닌 利點에 關해서
4. 書院이 宋의 太宗에 의해서 實地로 運用된 史實의 摘示
5. 中國書院의 史實을 引用해서 書院의 性格과 效果를 強調함과 아울러 넓게 國內現實을 洞察 論及
6. 以上の 原理原則과 事理의 大綱의 뒤를 이어서 退溪自身의 一身上의 事情敘述
7. 沈監司에 對해서 白雲洞書院의 恒久保存策에 關해서 具體的인 얼마간의 項目을 提示하고 이것을 達成하도록 申稟
8. 退溪自身의 去就와 責任痛感을 敘述함
9. 鄉校教育衰微의 現況
10. 書院責任者가 教育을 專管해야 할 것에 關한 附言

의 10個 項目이다.

위의 諸項 中 筆者는 前述한 바와 같은 見地에서 最後의 第10項을 重視하고 싶다. 『退溪全書』⁶⁾ 所收의 影印原文에 의하면 이 最後의 項은 「滉謹按故事……」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더욱이 一字 내려 椀손하게 쓰고 있다. 말하자면 第9項까지는 白雲洞書院의 保存 高揚을 위한 諸施策具現을 請하는 公的論理인데 對해서 第10項은 退溪自身의 信念에 立脚한 個(私)的 論理이다.

退溪에 의하면

5) 宋燮毓, 「李退溪의 教學思想—白雲洞書院賜號請求의 意義—」(嶺南大學校 『東洋文化』 第13輯)

6)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退溪全書—』 262頁~

「左右圖書 焚香靜坐 儻然若將終身人不知爲官人也」⁹⁾

라고 記述하고 있으나 遷居以來 그와같은 生活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 된다. 年譜에는

「堂名靜習 讀書其中 有詩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 自是從遊之士日衆」¹⁰⁾

이라고 있으나 名利的 세상으로부터 身을 물리어 學問의 진보가 없음을 自愛해서 日日自省 存養에 부지런히 노력해서 讀書·存養에 專心하는 그가운데서 先生이 確信한 「師道」는 스스로 確立되고 「從遊의 士가 날이갈수록 많아졌다」 즉 가르침을乞하는 弟子들이 저절로 거기에 모였던 것이다. 앞의 按文中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됨이 없는 스승의 밑에는 「有志之士必望望而去之」로 되어 오히려 書院을 損하게 되는 것을 先生은 힘을 다해 근심하는 것이었으나 이의 寒栖庵에서의 先生의 日常生活中的 實動은 바로 그의 反對를 스스로 具現하고 있었던 것이다.

明宗 8年 癸丑(1553) 先生은 「辭謝乞更擇任師長」임에도 不拘하고 大司成을 拜하였으나 그때의 「諭四學師生文」¹¹⁾에 있어서 「今之學校 爲師長爲士子 或未免得失其道」라고 하면서도 新學의 少年들이 「師生之分」에 昧한 것은 「夫豈獨諸生之過哉」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諸生의 自省을 求함과 아울러 스승의 側에 있어서도 스스로 깊이 살피어서 師道를 確立·實踐해야 할것을 암암리에 엄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寒栖庵에 있어서 先生自身の 日日的 徹底한 人格的 實動에 선 立言이었으며 口舌의 美辭는 아닌 것이다.

寒栖庵에 關해서 先生自身은 그의 「陶山雜詠並記」中에서

「始余卜居溪縛屋數間 以爲藏書養拙之所」¹²⁾

라고 記述하고 있으나 이의 「藏書養拙之所」인 寒栖庵에서의 「臨流日

9) 同前書, 言行錄 卷之三 201頁

10) 同前書, 121頁

11) 同前『退溪全書二』 338頁~

12) 同前『退溪全書一』 100頁

陶山에서의 退溪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

書を 監司에 上呈한 것은 明宗 4年 己酉(1549) 先生 49歲의 12月이었다. 先生은 그 前年, 正月에 丹陽郡守를 拜受하고 이어서 同 10월에 豊基郡守로 拜受해서 任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筆者가 重視하는 것은 이 建議書を 上呈하고 곧

「以病三辭于監司請解官 不待報而歸」

即 先生은 「上沈方伯」書의 末尾 按文에 記述한 것과같은 師道를 스스로 實踐하려고 한 것이었다.

先生이 官을 辭職하고 歸鄉한 때의 양상을 鶴峯 金誠一撰의 「實記」⁸⁾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即

「其在郡 清風灑然 無一點私累 還家只有數擔行李而已」.

年譜에는 그것에 붙여

「惟書籍數篋而已」

라고 記述하고 있다. 말하자면 官職에 있어서 무엇인가 利를 求할 수 없기에 이것을 辭해서 數篋의 書籍을 주로하는 數擔의 行李만을 가지고 歸家한 것이다.

Ⅲ.

그래서 歸鄉한 先生은 翌 庚戌의 해에 50歲로서 그 2月 「卜居于退溪之西」라고 한 「寒栖庵」을 세운 것이었다. 그곳은 本宅의 隣接地이었으며 傍을 흐르는 溪에 臨해서 精舍를 만들고 이것을 寒栖庵이라고 이름붙여, 泉을 끌어들여 光影塘이라고 하며 梅나 柳를 심어서 三逕을 열고 庭前의 巨石을 彈琴石이라고 이름붙이며 溪의 東側正面에 溪를 걸쳐있는 巨巖을 古藤巖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뒤 丙辰年에 여기에서 先生을 拜한 金誠一은

7) 同前『退溪全書四』年譜 113頁～

8) 同前書, 244頁～

「凡書院 必有洞主或山長 爲之師 以掌其教」

라고 하는 것마저 大事의 一件이며 이것마저 더우기 「尤當舉行」即 必須的으로 具現해야 할 事項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前記의 第7項에서는 書院의 恒久保存策으로서 (1) 「頒降書籍」(2) 「宣賜偏額」(3) 「給土田藏獲」(4) 「監司郡守但勾檢……而勿拘」의 4個條를 들고 있다. 이 4個條 中 처음의 3個條는 말하자면 物的條件(教育學上으로 말해지는 바의 「外的事項」(exterior)의 整備의 要를 論述한 것이나 第4條는 書院의 確立을 위한 「內的事項」(interior)의 根本的인 것에 關해서 論述한 것이다. 即 國家의 官인 地方行政長官은 오직 「作養之方, 贍給之具」를 「勾檢」하는 것만으로 「苛令煩條」로써 여러가지 制約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말하자면 書院의 自主自律을 原則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書院의 自主自律을 大幅으로 承認해서 官이 이외의 干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當然 거기에 또 하나의 具體的條件이 要望된다. 그의 要望條件을 退溪는 第10項의 按文에서 앞의 第7項, 第4條를 붙여서 論述하고 있는 것이다. 그 要望條件이 말하자면 責任 있는 「洞主或山長」을 두고서 이를 스승으로 確立하고 이의 스승이 教育의 一切를 全責任을 지고 遂行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洞主 山長을 스승으로 해서 教育을 專管토록 한다는 것에는 退溪에 의하면 더욱 具體的이며 根本的인 必須條件이 있다는 것이다. 即 그것은 「一世師表」됨에 相應할만한 「人才德望」이 卓然한 人物을 選任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教育은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見地에 서 있는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을 얻지 못할 때는 「反有損於書院」이기에 書院이 自主自律的으로 確立하기 위해서는 徹頭徹尾 山長에 그런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必須的인 것이라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退溪의 敘述은 그의 構成에 있어서 극히 論理的이며 더우기 그 자신의 教育에 關한 信念을 確立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그 것에 統一的으로 凝縮・歸還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體系의이다.

西厓 柳成龍의 退溪先生 『年譜』⁷⁾에 의하면 先生이 위의 「上沈方伯」

陶山에서의 退溪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

有省]의 生活을 實踐한 그 先生下에 가르침을 請해와서 배우는 者가 日益漸多한 것이었다.

이 寒栖庵은 곧 碩學인 뛰어난 學者가 在鄉해서 日日 學問研究와 自省修養에 증사해서 거기에 自然히 確立된 그의 師道下에 各地로부터 笈을 질머지고 가르침을 받으려 오는 者가 연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바로 藏書養拙書堂의 典型인 것이다.

先生은 그후 後述한 것처럼 陶山으로 옮겨서 陶山書堂을 經營하기에 이르르나 이 陶山書堂은 바로 寒栖庵의 延長이며 역시 典型的인 藏書養拙書堂이고 이것이 陶山書院의 核心的 契機를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書院이라고 하더라도 紹修書院과 陶山書院은 그 成立의 根本的 契機를 달리하고 있으며 教育史學的으로는 陶山書院이야말로 朝鮮朝書院의 典型的 淵源形態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Ⅳ.

退溪先生은 위의 寒栖庵에서 「更謀遷而得地於山之南」¹³⁾ 하였다. 그 것은 明宗 12年 丁巳(1557) 先生 57歲의 때였다. 이 以後 明宗 22年 丁卯(1567) 召命入都할 때까지의 10年間은 退溪思想의 體系的 完熟期에 해당하며 退溪思想研究上 가장 重要한 時期이나 同時에 이의 10年間은 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이 가장 顯著히 發現한 時期이기도 하였다. 先生은 이때에 배운대로 가르치고 가르침대로 배우는 眞箇師道를 스스로 體現한 것이었다.

「陶山雜詠並記」에는

「自丁巳至于辛酉五年而堂舍 兩屋粗成 可棲息也」¹⁴⁾

라고 있으며 이의 堂을 「陶山書堂」, 이의 舍를 隴雲精舍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年譜에는 이 前年の 庚申年(1560)에 「陶山書堂成」이라고 있으며 1年の 틀림이 있으나 先生自身에 의하면 「可棲息也」라고 하는

13) 同前

14) 同前書, 101頁

狀態에까지 完成한 것은 辛酉年(1501)이었을 것이다. 年譜의 解說記事에 의하면 이 陶山書堂이 이룩되면서부터 先生은 「自是又號陶翁」이라고 하기에 庚申年은 先生에 있어서 하나의 轉機가 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實際 先生은 이해 11월에 「答奇高峯書辯四端七清」에 의해서 退溪獨自의 理氣說을 樹立한 것이었다. 辛酉年의 陶山書堂成立後

「先生每至陶山 常居玩樂齋 左右圖書 俯讀仰思 夜以繼日 家貧疎糲 僅充而攻苦食淡 他人視之疑其不堪 而先生裕如也 蓋先生……」¹⁵⁾

이었다고 年譜에 記述하고 있다. 「每至陶山」이었기 때문에 아직 陶山書堂에 定住한 것은 아니고 庚申年 中은 山의 裏側에 해당하는 寒栖庵에서 陶山書堂에 通學한 것이라고 推測되나 「俯讀仰思 以夜繼日」이라고 하기 때문에 夜分에 이르기까지 終日 讀書와 思索에 專心한 것이다.

隴雲精舍의 공사가 이룩된 것도 이 庚申年 中이었다고 생각되나 辛酉年 3月 「築節友社」라고 있기에 아마 서로 함께 공을 드린 것일 것이다. 「從遊之士」들도 庚申年 中에 隴雲精舍에 자면서 群居肄業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 陶山의 땅은 在鄉의 碩學이 스스로 終日終夜 「俯讀仰思」하고 그 밑에서 수많은 「從遊之士」가 群居肄業하는 燦然한 「師道教育」의 땅으로 되어 있었다.

年譜의 이 「陶山書堂成」의 條 末尾에 다음과 같은 一文이 있으나 筆者는 이것에 강한 注意를 惹起시킨다. 卽

「其後 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處 名曰亦樂 取論語自遠方來之義」¹⁶⁾

이것이 亦樂書齋이었으며 『禮安郡邑誌』에는 이의 亦樂書齋에 關해서

「在精舍西短簷上 鄭料爲其子士誠受業而營築 扁額亦李滉手書」¹⁷⁾

라고 記述하고 있다.

大山李象靖撰의 「芝軒鄭公行狀」에¹⁸⁾ 이것에 關한 敘述이 있다. 卽

15) 前揭年譜, 129頁

16) 同前

17) 『禮安郡邑誌』(奎章閣藏本, 第10345號)古跡條

18) 影所本, 『大山先生文集, 下』1028頁~

陶山에서의 退溪先生의 人格的 教育實動

〔(前略) 許年十七 謁李先生于陶山 仍請業 先生曰 敬是入道之門 必以誠 然後不至於間斷 仍命名與字手書以贈之 右尹公爲公構小齋於陶山 使之居 先生 名其齋曰童蒙……〕

鄭士誠은 「嘉靖乙巳二月二十九日生」이기때문에 仁宗元年 乙巳(1545)에 태어났으므로 退溪先生에 배알한 17歲때는 陶山書堂을 「粗成」한 辛酉年이어서 이해에 右尹公 鄭科가 退溪先生으로부터 「士誠」이라는 이름을 手書해서 주는것을 받기위해 「童蒙齋」를 營築하고 여기에 살게하면서 先生에게 배우게 한 것이다. 當時의 陶山書堂이나 隴雲精舍에 入을 許可받은 者는 白雲洞書院의 例에 의하면 司馬初試 合格以上の 者이었다고 생각되어 初學入門의 芝軒鄭士誠은 이의 童蒙齋에 起居한 것일게다. 鄭士誠은 戊辰年(1568) 24歲로서 進士試에 合格하고 있기에 아마도 이의 前後에 退溪先生에 의해서 「亦樂書齋」라고 命名되어 手書의 扁額을 받아서 이미 初學入門者의 起居所로서는 없어지고 各地로부터 退溪先生의 學德을 慕모해서 가르침을 請해서 오는 儒士들의 宿所로 되었을 것이다.

鄭士誠은 後에 「築室芝山之陽 因自號芝軒 遠近學者多就質焉」이라고 말한다.

筆者가 注目하는 바는 退溪先生이 記를 撰하며 院規도 定해서 준 伊山書院이 「故郡守琴侯椅所創」인 「養正堂」을 其側에 移構해서 이것을 收斂한 것⁹⁾과 마찬가지로 後日의 形態는 變化했으나 鄭科營築, 鄭士誠就學의 「童蒙齋」가 陶山書院에 收斂된 것이다. 다시말해 실로 學德兼備의 學者의 「藏書養拙之所」에는 자연히 많은 從遊之學徒가 몰려와서 高度의 教育機能을 發揮할 뿐만 아니라 初學入門의 施設도 또한 거기에 흡수되어 收斂되어간다고 하는 하나의 教育法則性이 보이는 것이다.

退溪先生의 陶山에 있어서의 人格的 教育實動은 실로 朝鮮朝의 特殊한 具體的 形態에 있어서 한 教育의 普遍的 法則性을 顯現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李慶燮譯)

9) 註 4와 같음